

지역 래퍼들이 선사하는 이색 '붐뱌' 향연... '힙합'과 더 가까이

힙합 그룹 '1187' 주최 '랩스테이지2: 붐뱌 스테이지' 공연 성황
 여유로운 바이브부터 타이트한 랩까지...대학동아리 출신 매력 발산

"씨 뿌리는 것 킥 앤 스네어 드럼 위에 시를 찌끼리는 것, 씨 뿌리는 것만큼 B급인 것들은 이해 못할 것들로 내 댄을 꾸리는 것"(9rm의 싸이퍼 가사 중에서)

가사에서 라임(운율)이 느껴지는 힙합은 시와 닮았다. 두운·각운부터 중의적 표현으로 한 대 맞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펀치라인'까지. 힙합은 문학과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중 '붐뱌'는 1980-90년대 미국 힙합의 정수를 응축한 장르로, 드럼의 둔탁한 소리 등을 목소리로 형상화한다. '제이 Z(Jay Z)', '닥터 드레' 등 글로벌 레전드 래퍼는 물론 '나플라', '오원 오버도즈' 등 국내에도 이름을 날리는 스타들이 붐뱌 장르에서 일가를 이뤘다.

지역에는 왜 이런 래퍼들이 없을까? 지난 24일 찾은 전남대 후문 공연장 부드러운 직선(북구 호동로 22-1)에서 펼쳐진 '랩스테이지2: 붐뱌 스테이지'는 '제2의 닥터 드레'를 꿈꾸는 지역 유망 붐뱌퍼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었다. 출연진들은 그동안 언더그라운드·서브 컬처로 치부되던 힙합이 로컬에서도 견제함을 과시했다.

공연은 광주 힙합 브랜드를 목표로 지난해 론칭한 '1187' 대표 이다운(랩네임 Lockda)이 기획했다. 프리스타일계에서 권위 있는 대회 SRS 등에도 출전했던 그는 무등산 정상 천왕봉의 고도(1187m)에서 모티브를 얻어 로컬 힙합공연 기획팀 1187을 만들었다. "광주에 실력 있는 래퍼들이 많은데 좁혀서 '로컬 바이브'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부

족하다"는 것이 팀 설립의 이유.

공연은 예고 없이 여러 명 래퍼들이 같은 비트로 돌아가면서 랩을 하는 '싸이퍼(Cypher)'로 시작했다.

전주에서 달려온 래퍼 '9rm(구름)', 전남대 힙합동아리 SU:M에서 활약한 '쿠바나 햄보', 조선대 힙합동아리 Free\$T 출신 'U-SIK'을 비롯해 '랜틸 빈', '잭 퓨어', '소문' 등 로컬 래퍼들도 압도적인 스킬을 보여줬다.

여유로운 바이브부터 타이트한 랩까지, 저마다의 개성이 비트에 실려 있어 싸이퍼였음에도 하나의 완성도 있는 콜라보 앨범의 트랙을 듣는 느낌을 자아냈다.

이러 개별 공연도 펼쳐졌다. 조선대 힙합동아리 'Free\$T' 출신 U-SIK(본명 김유식)은 '웨스트코스트 힙합'을 표방하며 스킬풀한 래핑을 구사했다. 고희의 신시사이저와 루프 등으로 1990년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힙합 하위 장르 '지 펑크(G-funk·갱스터 펑크)' 스타일로 오묘조밀 쌓은 라임의 진수를 선사했다.

날카로운 래핑이 특징인 '쿠바나 햄보'가 등장할 때는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른 래퍼들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공연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을 띄운 것과 달리 취준생 느낌의 증명사진을 준비했기 때문. 햄보는 직설적인 가사로 의설과 예술의 경계를 외출타기했다. 힙합이 '자유'를 표방하는 장르라면, 그의 래핑은 힙합의 본질에 충실하게 다가왔다. 특히 그동안 써낸 시를 모아서 만든 '포르쉐 등



1187 대표 Lockda(이다운)

은 성공을 꿈꾸는 래퍼로서의 야망을 보여주며 호응을 얻었다.

찬조 출연한 래퍼 Mr.Gwee(본명 정귀환)의 육중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붐뱌 러버'도 이목을 끌었다. 미스터 귀가 목작하게 올리는 베이스 드럼이라면 햄보의 목소리는 스네어 또는 플로어 탐의 소리처럼 다가왔다. 래퍼 필레드다임도 콜라보 무대를 보여줬다. 이어 래퍼 잭 퓨어, SoMun 등이 차례로 흥겨움을 더했다.

인터미션에 광주 힙합크루 플레이어 소속 래



공연이 시작하자 래퍼 '랜틸 빈'이 힙합 싸이퍼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퍼 '랜틸 빈'을 만났다. 그는 "2017년 조선대 힙합동아리 Free\$T에서 활동을 시작으로 힙합에 입문했다"며 "랩네임 '랜틸 빈'은 작지만 영약소가 풍부한 '랜틸콩'처럼 파워풀한 래핑으로 지역 힙합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공연이 시작되자 그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곡 'Till i die' 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전주에서 달려온 래퍼 '9rm'도 특색 있는 보이스

톤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프리스타일 래핑부터 앨범에 수록하려 준비 중인 곡 '인트로', '에너지'를 비롯해 타인들의 삶을 상상하며 쓴 'I AM' 등을 들려줬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박정연(여·27) 씨는 "잭 퓨어 등 오를 라인업한 래퍼들을 응원하러 왔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접하니 기대하던 것 이상이다"며 "힙합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글씨가 주는 생동감, 그리고 따스한 감성

모은영 초대전, 3월16일까지 예술이 뿜그라운드

주위에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컴퓨터 자판만 두드려면 똑딱 글이 완성되고, 휴대폰을 활용해 글을 쓰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무리 컴퓨터, 디지털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서 작성이 가능해도 손글씨가 주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매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기계와 인간이 구현하는 각각의 글씨는 전혀 다른 느낌을 환기한다. 예로부터 '글씨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던 것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과정에 인간적인 요인들이 투영된다는 의미가 전제돼 있다.

글씨예술가 갈매 모은영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학예술문화공간 예술이 뿜그라운드(대표 이당금)에서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氣滲神動'. 다소 철학적인 주제는 "전시를 통해 삶의 바다에 큰 생동감을 일으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모작가는 "글자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글이 되는 과정은 각기 따로따로 흩어져있던 섬이 또 다른 섬을 만나 넓은 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획의 기운생동과 재료들의 물성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글씨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한

다"고 밝혔다. 전시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정현중 시인의 '섬'이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구절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일부분 함의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다. 세상이라는 거센 풍랑이 이는 외로운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은 존재다. 섬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견지하는 것은 인 지상정일 터. 작품 속 동등 떠 있는 섬과 그것들을 에워싼 세상은 고립돼 있지만은 않다. "따로 또 같이"라는 이미지를 환기함으로써 개별과 연대의 의미를 포괄한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과 동일한 작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호연지기의 기상이 전해진다. 그러나 뿔장군의 이미지만을 환기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감성도 선사한다. '뿔'이라는 글씨는 물이 흐르듯 유장하면서 다른 글씨들을 아우르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율한다.

이당금 대표의 이번 전시에 대해 "자신만의 글씨체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이름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크고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바다의 파도처럼 이번 전시의 생동감이 관객들에게



'희망은 자신의 선택이자 용기이다'

희망의 기운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골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해운 작가 '눈치 게임' 펴내

문제 학교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는 어느 날 시인이 된다. 할머니에게는 도시에서 컴퓨터 웹 개발을 하는 아들이 있다. 어느 날 아들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한다.

정해운 작가가 펴낸 '눈치 게임'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티브로 한 연작 소설이다. 전체적인 서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 작가는 지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또야또 아줌마'로 등단했다. 또한 '말뭉, 그 끝에서'로 2013년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오랫동안 주로 지내다가 문화센터에 공부를 하러 가서 창작을 하게 된다. 첫 작품으로 당선 됐고 오늘에까지 이어졌다.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떠나들며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가의 이번 작품의 중심 서사 공간은 시골이다. 시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한다. 평범한 노인들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들도 있다. 저마다 다른 출신과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의 구성원들이다.

정 작가는 "문제 학교 할머니들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니 벌써 5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라고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말했다.

어르신들은 세련되지 않지만 제법 긴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글을 몰라 겪었던 불편함과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었고 일상 소소한 애저거리가 글이 된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정 작가는 "글은 몰라도 사는 이치는 흔히 깨고 있는 속 깊은 할머니와 발랄한 손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며 "거기에 노년의 사랑과 이주 노동자의 사연이 겹쳐졌고 다문화 이야기가 곁들여졌다"고 말했다.

사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어디에나 있다. 단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뿐인데 모두 이웃으로 존재한다.

특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러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저자는 말한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낯선 환경임에도 이들은 모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산다고.

그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 상처를 깨달을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다른 무엇보다 기쁨은 알아도 모른 척해 주는 마음 깊은 배려가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서 만나는 예술영화들, 존재 의미를 들여다보다

'갓랜드'·'가여운...' 광주극장 개봉 '여기는 아미코'·'바튼...' 등 상영중

인간 존재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예술 영화들이 스크린을 수놓는다.

29일 개봉하는 홀리우드 필메이슨 감독의 '갓랜드'가 이목을 끈다. 덴마크의 목회자가 교회에 짓기 위해 아이슬란드로 떠나는 여로형 작품으로 자연의 압도적인 풍광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을 담았다. 자연과 인간, 종교와 식민주의 등을 거치는 깊은 사유를 작품에 투영했다.

3월 6일 찾아오는 '가여운 것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SF·펠로/로맨스물이다. 오스카 여신 엘마 스톤, 헬크 역을 연기했던 천의 얼굴 마크 러팔로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과학자에 의해 되살아난 벨라 백스터(엘마 스톤 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대륙을 횡단하면서 펼쳐지는 반전미·영상미 넘치는 작품으로 기계와 인간의 사랑, AI 시대의 미래 등 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갓랜드'

'더 랩스터' 등에서 파격적 연출로 정평이 난 오스카 란티모스가 감독을 맡았으며 올해 런던 비평가협회상, 골든 글로브 작품상,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등을 수상하며 화제작 반열에 올랐다.

이에 앞서 28일 개봉한 '여기는 아미코'는 이마 무라 나쓰코가 쓴 동명의 소설을 모리 유스케 감독



'가여운 것들'

이 영화화한 작품이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사회 단면과 이웃들의 흉터를 짙하게 그렸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봄이 오는 계절의 길목에서 꽃처럼 빛나는 예술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밖에도 현재 상영 중인 '바튼 아카데미', '오키쿠와 세계'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예위 '2024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도서관, 박물관, 서점 등 문학기반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를 3월 8일까지 진행한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예위 등이 기존에 운영하던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사업' 등을 통합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도 '문학 기반시설' 전체로 확대해 약 70개 시설과 작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는 물론 작가 인건비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 지원을

강화했으며 시민들이 문학의 가치를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권역별 문학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학 서적이 비치돼 있고 작가의 창작공간 제공이 가능한 서점 등 문학기반시설이면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예위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되던 세계 사업을 통합해 운영 일원화를 모색했다"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많은 시민들이 문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